



# 국 가 별 동 향

## 미국

### 1백만수 이상 사육업체 62개사

미국의 Egg industry지가 지난해 말 현재 미국의 채란계 100만수 이상 사양기업을 조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수수를 사육하고 있는 회사는 칼멘푸드사로 2천2십만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천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기업은 7개사, 100만수이상을 사육하는 기업은 무려 62개사로 나타났다. 62개사에서 사육하는 닭마리 수수는 2억4천만수로 미국 전체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멘사를 비롯 상위 10대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41%보다 늘어난 42%를 기록하였다.(EI)

## 러시아

### 예상보다 빠른 양계산업 성장

미농무성(USDA)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양계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가금생산량이 725천톤으로 전년보다 12%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추세는 쿼터제와 고가의 가격유지로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새로운 상품과 가공산업의 개발에 대한 투자도 증가되면서 가금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브라질로부터 닭고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 시장공략을 위해 추격에 나서고 있다.(PI)

## 필리핀

### 네덜란드의 계란 가공기술 지원 받기로

필리핀계란협회(PEB)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의 채란산업이 수출증가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가공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에서는 필리핀으로부터 1억개의 계

란 가공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공기기들을 원조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제4차 필리핀계란 전시회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투자가 가시화 될 경우 국내 가공산업의 발달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으로 앞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에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필리핀은 일본에 1,500 톤의 계란을 수출한 바 있으며, 필리핀계란협회를 중심으로 국민 1인당 1년 소비량 200개 이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의 계란 소비량은 동남아국가에서 가장 낮은 92개를 보이고 있다.(PI)

## 태국

### CP그룹 전반기 매출 증가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닭고기의 낮은 가격, 생산 감소 등으로 고전을 겪어오던 태국의 식품회사인 CP그룹 금년 1/4분기 매출증가로 이익을 가져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 매출액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우 등 수출증가 뿐만 아니라 가열닭고기의 수출증가 등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WATT)

## 일본

### 일본 축구협회, 조류인플루엔자 발병한 평양 갈 수 없다 표명

일본 스포츠신문인 ‘스포츠닛폰’에 따르면 ‘일본축구협회가 북한 평양에서 발생한 조류인

플루엔자를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에 6월 8일 월드컵 최종예선 북한-일본 경기의 제3국 개최를 제의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4일 보도했다.

북한 관중들의 경기장 난동을 이유삼아 개최지 변경을 고려하던 일본으로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좋은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높다. 스포츠닛폰은 “지난 2월 25일 평양부근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감염이 의심되는 닭 21만 마리를 땅에 묻어 처리했다”며 “북한내에서 닭고기와 달걀의 판매가 금지됐다”고 덧붙였다. 일본축구협회는 평양 대신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나 시아람을 후보지로 손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YTN)

## 유럽연합(EU)

### 2011년까지 닭고기 5.8%, 계란 0.6% 증량

유럽연합(EU)의 2011년 예상되는 생산량을 보면 가금육의 경우 2004년보다 5.8% 늘어난 11,721천톤이, 계란의 경우 0.6% 늘어난 6.22 백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금육소비는 꾸준히 느는 반면 계란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닭고기소비량은 24.8kg으로 다소 늘어나지만 계란은 13.2kg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에 있어서도 계란은 거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닭고기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큰 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국이 결합된 유럽연합(EU)은 돼지고기(51.7%), 닭고기(28.1%), 소고기(20.1%) 순으로 축산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PI)